



정론

우 리 의 하 루

천군같은 시간이 가고있다. 쉴수없이 많고많은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싣고 끌고간다. 누구는 눈부리 아득한 세로등판을 인민의 무몽도원에서 카우어하며, 누구는 청천강을 행복이 흐르는 락원외 강으로 건너가며 이 하루를 보내고있다. 수천척지하망에서 기를진 식판을 들뜬 들뜬 깨는 탄부들, 문명과 건축의 첨단을 앞장에서 돌파해가는 설계가들, 조국의 앞날을 책임진 사명감으로 가슴 불태우며 밤새워 교수안을 준비하고있는 교수자들, 밤에 잠을 못자고 지쳐서 쉬부러지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협동농의 농장원들... 매 사람이 구별되고 하는 일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땅에 흐르는 하루하루에는 하나의 지향이 있고 숨결이 있다. 바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기어오르려는 비정한 각오와 열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루, 소리가 없으면 이 시간에 심오한 깨우침의 목소리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라, 결코 보물창, 보물창처럼 보물수 없는 우리의 하루, 사회주의조국의 하루이다.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이 새로워졌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우리를 압살하려고 달려드는 제국주의배후로부러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선군으로 다져진 힘의 배배, 친체로 분출시켜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승리의 투쟁이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고수하는것도 역사에 류태는 위업이었다. 그러나 비약적인 빈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할나와 명치처럼 만들어놓으며 위대한 기일성, 김일성조선국을 세 세계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다. 영웅들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고집시켜 조국의 자주적인 역사를 끌어놓고 지구에서 선군조선의 이름을 없애자는것이다. 하지만 시간도 우리의 편이고 정기도 우리의 편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 뒤떨어진 민족이

의 힘과 전진의 속도를 거루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조국이 세계앞에 더 당당히 나서는 시대에 확실성있게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신념으로 지켜낸 사회주의생명을 우리의 재부와 부귀영화로써 더 아득하게 쌓아올리는 이 역사적대과업이바로 보태 격동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리상의 불우리에서 오는 세월의 총계들이 오늘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뛰 어넘는가에 따라 최후승리의 시간표가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두 사상, 두 제도, 두 생활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대결과 경쟁의 최후승패를 내다보게 하는 창구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수호전과 하루, 그러럼 거대한 위업이 끝없는 시간의 바다속에서 자그마한 물방울들에 불과한 오늘의 하루하루로써 결정된다. 이렇게 심각한 대담앞에 우리 서보았던가. 어느 나라가 더 리상적이고 발전력있는가를 알려면 그 땅에 흐르는 날과 날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생활방식, 투쟁일도를 보면 한 나라의 전도를 알수 있다. 어디서나 초침은 똑같이 돌아간다. 꿈이 없는 나라, 번영을 바라지 않는 정도가 없으며 그 어느 땅에서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있다. 하루에 대한 자각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난날에 한초가 가장 소중한 시간의 단위였다면 이제는 그 작은 한초도 열백으로 나누어가며 급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사립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순간순간 부단히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차이는 바로 이 하루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자본주의의 보드 앞선 메일메일이 모여 사회주의의 리의 력사가 되며 어제 앞섰다가도 오늘 뒤떨어지면 그 차이는 상상 못할 정도로 아득히 벌어지는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이 시각도 제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좌절시키기 위한 시간전쟁을 벌이고있다. 저들만 시시각각 발전하고 우리의 하루는 지구의 자전속에서 멈춰버려버리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모지름을 쓰고있다. 리우들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고집시켜 조국의 자주적인 역사를 끌어놓고 지구에서 선군조선의 이름을 없애자는것이다. 하지만 시간도 우리의 편이고 정기도 우리의 편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 뒤떨어진 민족이

어떻게 존엄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민족으로 되는가를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확실할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 어떤 대국도 막아질수 없는 강대한 힘이 있다. 진리로 뭉쳐진 단결의 힘, 백전백승만을 펼쳐주는 선군의 보검이 있는 한 시간도 정기도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자신만만하며 그 기강은 원수들을 전복케 하고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하루, 자주적대가 날마다 커지는 우리의 하루를 보라. 봄빛이 따스히 흘러넘치는 우리의 마을과 거리를 보고 날마다 변모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 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미미운 인민군인들, 그들의 단결에의 속도, 결사관철의 정신은 이 나라의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준다. 선군조선의 불굴의 전진, 위대한 기적의 상징인 마시멜스크이장이 어떻게 태어났던가. 하루하루가 백병전이었다면 어제날의 전투장에서 우리는 몇개의 수자들을 더들어 본다. 한 교대에 10회이상 밟아, 셀배부루로 매 부대에 매일 1,000여명의 총과 막돌 처리, 대형화물자동차 대외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리에서 말려 수천의 물동 운반, 100여리밖에서 건설자재를 날라오면서도 연간총중적 2만톤 가 넘는 짐을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축조, 2000m구간의 암거공사를 단 20 일동안에 결속... 우리의 병사들이 조국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수자들이 다 말해주지 않는다. **《10월 10일까지는 70일 남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곡의 보고를 올릴 날까지는 42일 남았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전투장마다에서 불수 있었던 이런 글자들은 병사들이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어제 병사들뿐이라. 지금도 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에서부터 새로운대대가 이르기까지 조국의 어디서나 긴장한 하루가 흐르고있다. 이런 날과 날이 모여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이 땅에서 만민대계의 기념비들이 연이어 솟구치고있다. 전체 인민이 한당어리가 되어 자기의 제도와 자기의 위업을 위해 기적과 위훈의

어떻게 존엄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민족으로 되는가를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확실할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 어떤 대국도 막아질수 없는 강대한 힘이 있다. 진리로 뭉쳐진 단결의 힘, 백전백승만을 펼쳐주는 선군의 보검이 있는 한 시간도 정기도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자신만만하며 그 기강은 원수들을 전복케 하고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하루, 자주적대가 날마다 커지는 우리의 하루를 보라. 봄빛이 따스히 흘러넘치는 우리의 마을과 거리를 보고 날마다 변모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 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미미운 인민군인들, 그들의 단결에의 속도, 결사관철의 정신은 이 나라의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준다. 선군조선의 불굴의 전진, 위대한 기적의 상징인 마시멜스크이장이 어떻게 태어났던가. 하루하루가 백병전이었다면 어제날의 전투장에서 우리는 몇개의 수자들을 더들어 본다. 한 교대에 10회이상 밟아, 셀배부루로 매 부대에 매일 1,000여명의 총과 막돌 처리, 대형화물자동차 대외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리에서 말려 수천의 물동 운반, 100여리밖에서 건설자재를 날라오면서도 연간총중적 2만톤 가 넘는 짐을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축조, 2000m구간의 암거공사를 단 20 일동안에 결속... 우리의 병사들이 조국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수자들이 다 말해주지 않는다. **《10월 10일까지는 70일 남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곡의 보고를 올릴 날까지는 42일 남았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전투장마다에서 불수 있었던 이런 글자들은 병사들이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어제 병사들뿐이라. 지금도 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에서부터 새로운대대가 이르기까지 조국의 어디서나 긴장한 하루가 흐르고있다. 이런 날과 날이 모여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이 땅에서 만민대계의 기념비들이 연이어 솟구치고있다. 전체 인민이 한당어리가 되어 자기의 제도와 자기의 위업을 위해 기적과 위훈의

어떻게 존엄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민족으로 되는가를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확실할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 어떤 대국도 막아질수 없는 강대한 힘이 있다. 진리로 뭉쳐진 단결의 힘, 백전백승만을 펼쳐주는 선군의 보검이 있는 한 시간도 정기도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자신만만하며 그 기강은 원수들을 전복케 하고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하루, 자주적대가 날마다 커지는 우리의 하루를 보라. 봄빛이 따스히 흘러넘치는 우리의 마을과 거리를 보고 날마다 변모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 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미미운 인민군인들, 그들의 단결에의 속도, 결사관철의 정신은 이 나라의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준다. 선군조선의 불굴의 전진, 위대한 기적의 상징인 마시멜스크이장이 어떻게 태어났던가. 하루하루가 백병전이었다면 어제날의 전투장에서 우리는 몇개의 수자들을 더들어 본다. 한 교대에 10회이상 밟아, 셀배부루로 매 부대에 매일 1,000여명의 총과 막돌 처리, 대형화물자동차 대외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리에서 말려 수천의 물동 운반, 100여리밖에서 건설자재를 날라오면서도 연간총중적 2만톤 가 넘는 짐을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축조, 2000m구간의 암거공사를 단 20 일동안에 결속... 우리의 병사들이 조국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수자들이 다 말해주지 않는다. **《10월 10일까지는 70일 남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곡의 보고를 올릴 날까지는 42일 남았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전투장마다에서 불수 있었던 이런 글자들은 병사들이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어제 병사들뿐이라. 지금도 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에서부터 새로운대대가 이르기까지 조국의 어디서나 긴장한 하루가 흐르고있다. 이런 날과 날이 모여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이 땅에서 만민대계의 기념비들이 연이어 솟구치고있다. 전체 인민이 한당어리가 되어 자기의 제도와 자기의 위업을 위해 기적과 위훈의

어떻게 존엄있는 나라, 앞서나가는 민족으로 되는가를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확실할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 어떤 대국도 막아질수 없는 강대한 힘이 있다. 진리로 뭉쳐진 단결의 힘, 백전백승만을 펼쳐주는 선군의 보검이 있는 한 시간도 정기도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자신만만하며 그 기강은 원수들을 전복케 하고있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하루, 자주적대가 날마다 커지는 우리의 하루를 보라. 봄빛이 따스히 흘러넘치는 우리의 마을과 거리를 보고 날마다 변모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이 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미미운 인민군인들, 그들의 단결에의 속도, 결사관철의 정신은 이 나라의 매일, 매 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준다. 선군조선의 불굴의 전진, 위대한 기적의 상징인 마시멜스크이장이 어떻게 태어났던가. 하루하루가 백병전이었다면 어제날의 전투장에서 우리는 몇개의 수자들을 더들어 본다. 한 교대에 10회이상 밟아, 셀배부루로 매 부대에 매일 1,000여명의 총과 막돌 처리, 대형화물자동차 대외봉까지 왕복 200리길을 하루 8리에서 말려 수천의 물동 운반, 100여리밖에서 건설자재를 날라오면서도 연간총중적 2만톤 가 넘는 짐을 최고 30여시간에 한층씩 축조, 2000m구간의 암거공사를 단 20 일동안에 결속... 우리의 병사들이 조국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수자들이 다 말해주지 않는다. **《10월 10일까지는 70일 남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곡의 보고를 올릴 날까지는 42일 남았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전투장마다에서 불수 있었던 이런 글자들은 병사들이 우리 시대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어제 병사들뿐이라. 지금도 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에서부터 새로운대대가 이르기까지 조국의 어디서나 긴장한 하루가 흐르고있다. 이런 날과 날이 모여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이 땅에서 만민대계의 기념비들이 연이어 솟구치고있다. 전체 인민이 한당어리가 되어 자기의 제도와 자기의 위업을 위해 기적과 위훈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튜니지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튜니스 튜니지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문씨프 알 마르주끼각하

나는 튜니지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전과 안정,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김영남 튜니지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문씨프 알 마르주끼각하  
 주제103(2014)년 3월 20일 평양



혁명부력건설에 쌓아올린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 평천 혁명사적지에서 -

**활발히 진행되는 화선시정치사업**  
 개천관공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록 혁명정당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사상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는것이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개천관공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은 단원들과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전선제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

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 교양사업계획을 수립,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운대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특히 일꾼들부러가 백두산전선제위인들의 위대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깊이 연구학습한대 기초하여 생생한형 상들이 나가 화선시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막장에 내려간 당일꾼은 작업의 일참을 리용하여 탄부들에게 한행생 끊임없는 선군건설의 길을 걸고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결절한 혁명정신을 빼에 사무치게 간직한 일꾼**

△ 혁명정신의 결절성은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초석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이후 대고조전역들이 용광로처럼 끓여버지고 있다. 특히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서 정권대안실현의 투쟁으로 하여 청천강대단식발전건설장에서는 흐르는 불과 초가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지고있다. **《학경남도리단, 자강도리단, 황해남도리단을 비롯한 각 려단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 최현용사들의 괴와 땀이 스민 거창한 언제와 물결, 용맹들은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혁명정신의 산물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확신하는 정신력이 무뎠을 때 절정 못할 요소가 없다는것이 청천강대단식발전건설장에서는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최현정신창조의 불길이 새창 때 타고르고있는 대고조전장에서 우리는 선군시대 혁명가들의 불굴의 정신력

을 총폭발시켰었다. 이것이 어찌 그 일꾼들의 심정이라고 단 하겠는가. 그들의 사상공세에서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이 가슴깊이 간직되고 온갖 심장을 불길처럼 태워가는 우리 사상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며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일꾼들이 결절한 혁명정신을 빼에 사무치게 간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혁명의 길은 순탄치 않으며 혁명전선마다에서 결절한 혁명정신을 빼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사상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사람들의 온몸을 혁명력, 투쟁열로 꿰게 하는 이런 구호문헌들이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

지난 나라에 김일성-김정일주의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대회의열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한히 꿰뚫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대백과사전입니다.》** 유일사상교양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이며 그 교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이다. 우리 당은 혁명영웅의 전기가 유일사상교양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웠다.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될 로작학습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일대회의열이 힘있게 추진되고 수명을 증시므로 하는 통일전선이 역적으로 다져졌다. **《오늘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 올리고자 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산의 불길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학습이 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우리가 연구학습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교재이며 훌륭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쓰여진 명작들이었다. 고전적로작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백승으로 련도

한 훌륭한 경험과 업적, 강성국가건설에 관한 사상리론들이 집대성되어있다. 전체 인민이 불후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 학습하여야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사상을 계속할수 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대로 천하태평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다. 우리 조국의 빛나는 건설력사는 그 한결같은것이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사색과 로고속에서 전진하고 비약하여온 로정으로 수놓여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의 인제나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력강생의 철리도 시어주시고 기적의 나래도 달아주시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지침들을 하나하나 마련 해주셨다. 하기에 벽불 한강 성천강이 흐르던 빈터위에 건설속의 천리마가 날아 오를수 있었고 최악의 시련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다져져있었다. **《오늘의 사상공세의 돌파구도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한히 꿰뚫어라기 위한 학습열풍으로 들어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다. 로작들을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는 로작들을 학습하며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굳게 간직하고 있다. 이어서 나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참다운 우리가 연구학습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교재이며 훌륭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 실현전체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제시된 로작들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

한층 혁

김 철 학

#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 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은

##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위력떨쳐온 3대혁명소조운동

지금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창모로 뜻깊은 한페이지가 기록되고 있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전진대회장을 찾는 참관자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강화발전에 생애를 바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들이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함 령도와 따듯한 보살핌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62(1973)년 2월 3대혁명소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었다는 사실,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과 더불어는 사회의 체제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데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조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어버이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실현을 위한 사업이 전면에서 현실적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을 힘써 집중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3(19

84)년 10월과 11월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수행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술혁신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생기술혁신소조를 조직하여 과감하게 하시었다.

이에 따라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게 되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기술혁신수행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주제 74(1985)년 5월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와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의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전진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600여대의 로보트를 만들었으며 대단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주제 79(1990)년 4월부터 7월까지 제2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를 열도록 하여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 전진대회를 계기로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높은 정치적평가를 안겨주며 대한 크나큰 성원 2만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발명품과 창의 고안물 1300여점이 전시되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 7월 4일 몸소 기술혁신전진대회를 찾으셨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전진대회를 이끌이 보시면서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혁신과 발명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책

임일군들로부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전진대회를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참관일정까지 짜주시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당에 끌어들여 충직한 혁명전위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그들이 나라의 경제력을 위력있게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로보트화를 실현하는데서도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장서서 달려나가도록 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600여대의 로보트를 만들었으며 대단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주제 79(1990)년 4월부터 7월까지 제2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를 열도록 하여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 전진대회를 계기로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높은 정치적평가를 안겨주며 대한 크나큰 성원 2만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발명품과 창의 고안물 1300여점이 전시되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 7월 4일 몸소 기술혁신전진대회를 찾으셨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전진대회를 이끌이 보시면서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혁신과 발명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책

임일군들로부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전진대회를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참관일정까지 짜주시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당에 끌어들여 충직한 혁명전위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넣으시면서 그들이 나라의 경제력을 위력있게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로보트화를 실현하는데서도 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장서서 달려나가도록 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600여대의 로보트를 만들었으며 대단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주제 79(1990)년 4월부터 7월까지 제2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를 열도록 하여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 전진대회를 계기로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높은 정치적평가를 안겨주며 대한 크나큰 성원 2만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발명품과 창의 고안물 1300여점이 전시되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5(1986)년 7월 4일 몸소 기술혁신전진대회를 찾으셨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전진대회를 이끌이 보시면서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해주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기술혁신과 발명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책

**우리의 어깨 위에 덧짐을 얹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3대혁명소조원들이 벌려온 기술혁신전진대회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지난해에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장서서 달려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후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전진대회를 진행할 때 대대적으로 그 명칭을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로 확대하여서도 세심한 지도를 주셨다.

당과 국가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에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과감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들중에서 우수한 200여종의 320여점에 달하는 기술혁신성과들이 전시되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위력떨쳐온 3대혁명소조운동은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를 계기로 더 큰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검역공업연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3대혁명소조원들이 벌려온 기술혁신전진대회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지난해에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3대혁명소조원들이 앞장서서 달려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후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전진대회를 진행할 때 대대적으로 그 명칭을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로 확대하여서도 세심한 지도를 주셨다.

당과 국가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에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과감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들중에서 우수한 200여종의 320여점에 달하는 기술혁신성과들이 전시되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위력떨쳐온 3대혁명소조운동은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를 계기로 더 큰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 현실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몫

**청진강재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수행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절단기 발생머리부의 기술적개조문제에 생산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을 알 3대혁명소조원들이 초급당일군을 찾아간것은 두레전 어드님이었다.

《비서동지, 저희들에게 그 기술혁신과제를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때 공장의 일군들은 그 기술적개조를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고있었다. 바로 이런 때 소조원들이 초급당일군을 찾아온것이었다.

초급당일군은 공장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수 없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미 맡고있는 기술혁신과제도 중요하기때문이었다.

《지금 수행하고있는 기술혁신과제도 아름답게 일했겠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3대혁명소조원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 시대 선구자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문화화학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이야기를 통하여 하려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뒤따라가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추병,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석달밖에 안된 소조원 강기준동무가 중유화학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제기하였을 때 공장의 일군들과 중공업원들의 반응은 각이하였다.

지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더가 미심쩍어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연이 있었다. 보이라설비가 낡아 가동률이 떨어지는데다가 중유 소비량 역시 적지 않았다. 중공업생산공정현대화의 절박성을 누구나 느끼면서도 어려운 길이어서 선뜻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그래서 중기직장 로동자들은 생수를 들여 환영하는 반면에 그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왜 해내겠는가 하는 우려를 품은 일부 사람들은 선뜻 지지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강기준동무는 말하였다. 《선구자가 있어야 공장이 전진하고 조국이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3대혁명전위인 우리들을

## 선구자들이 걷는 길

**문화화학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수행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플라즈마절단기 발생머리부의 기술적개조문제에 생산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것을 알 3대혁명소조원들이 초급당일군을 찾아온것은 두레전 어드님이었다.

《비서동지, 저희들에게 그 기술혁신과제를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때 공장의 일군들은 그 기술적개조를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고있었다. 바로 이런 때 소조원들이 초급당일군을 찾아온것이었다.

초급당일군은 공장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수 없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미 맡고있는 기술혁신과제도 중요하기때문이었다.

《지금 수행하고있는 기술혁신과제도 아름답게 일했겠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3대혁명소조원

## 과일생산에서 앞장선 과일군 송곡농장에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 수여

과일군 송곡농장에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가 수여되었다.

지난해 각지 과수농장들 사이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진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마시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맛있는 사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과일생산은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할 대안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

과일생산에서 앞장선 과일군 송곡농장에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 수여

리명길 농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순회가 발표되었다.

과일군 송곡농장에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진로동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가 수여되었다.

통진과수농장 지배인 허명욱, 과일군농민위원장 리원균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선년사와 전국농민부부분 조창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맛있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제103(2014)년 사회주의증산경쟁우승기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염농법범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 농장에서 받아들인 단지모에 의한 소식제배방법은 영양단지모를 넣어 강이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다시말하여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넣어 키운 모를 눈에 넣어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이곳 일군들은 단지모를 내면 아지치는 마디가 얇게 붙어 아지를 잘 칠면만이나니 이페마디에서 나온 아지,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 아지일수록 이삭형성이 높고 이삭당 알수도 많은 등의 특성이 잘 살아나기 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

농장에서 단지모에 리용한 품종은 아지를 많이 지며 소식제배의 정성력이 높기 발휘되고 비옥제배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단지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

**청단군 남촌협동농장에서**

부식토와 묶인,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비롯한 단지모를 준비할 때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의를 돌린 점이 있었다. 모씨가 많은 흙에는 질소를 일정하게 섞어 단지모를 만드는것이였다. 그래서 단지모가 쉽게 부스러지지 않게끔 하였다.

단지모는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3cm, 모판규격은 길이 9.7m, 너비 1.7m 되게 정하였다. 이런 모판 7개이면 한정보의 모내기를 할수 있었다. 농장에서서는 단지모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리용하였다. 단지는 자전기살과 같은 쇠줄을 3cm간격으로 여러개 묶은 굵게모양의 도구를 리용하여 모판에 가로세로 미세한 홈을 파는 작업을 하였다. 이 홈을 3cm이하로 그어 모를 판대기형으로 뜯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를 운반할 때 깨개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농장에서는 씨부리기를 4월 중순에 시작하였다. 단지모를 넣는 씨앗을 모판에 넣고는 평당 10kg의 중자를 절약하면서 한정보의 모판을 만들었다. 이 농장의 단지모에 의한 소식제배방법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모판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하여 모판을 한것이다. 판리위원장과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부지가 큰 단지모를 재배하는 조건에서 평당 포기수보장문제를 중시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시험제배작업을 하였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지난 시기 벼이삭이 열매미만밖에 안되던 조건을 비롯하여 어느 논에서나 예상외로 아지치가 잘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 시험포전에서 이 아지들도 적지 않았었다. 단지모는 밭갈이에 좋고 모판내도 편리하며 햇빛이 잘 비추는 위치에 정하였다.

## 과일생산에서 앞장선 과일군 송곡농장에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 수여

과일생산에서 앞장선 과일군 송곡농장에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 수여

리명길 농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순회가 발표되었다.

과일군 송곡농장에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진로동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사회주의증산경쟁순회우승기가 수여되었다.

통진과수농장 지배인 허명욱, 과일군농민위원장 리원균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선년사와 전국농민부부분 조창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맛있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주제103(2014)년 사회주의증산경쟁우승기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염농법범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 농장에서 받아들인 단지모에 의한 소식제배방법은 영양단지모를 넣어 강이 농사를 짓는 것과 유사하다. 다시말하여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넣어 키운 모를 눈에 넣어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이곳 일군들은 단지모를 내면 아지치는 마디가 얇게 붙어 아지를 잘 칠면만이나니 이페마디에서 나온 아지,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 아지일수록 이삭형성이 높고 이삭당 알수도 많은 등의 특성이 잘 살아나기 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

농장에서 단지모에 리용한 품종은 아지를 많이 지며 소식제배의 정성력이 높기 발휘되고 비옥제배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콩유유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선전선동의 텨바람을 일으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진대회에서... 본사기자 김성철



#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댄다

## 세 포 지 구 축 산 기 지 전 설 장 에 서

###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

### 위훈 창조와 앞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어디서나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총폭발시키기 위한 열풍이 세계를 일고있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지휘관들과 성, 중앙기관장들, 각 도려단들의 일군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할 신념의 맹세를 안고 방축선전차는 물론 포진방축기, 붉은기를 비롯하여 1만여점의 선전선동수단을 전투장에 집중시켜 일제히 사상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봄을 낚았던 기간에 불철 불살라 대상건설준비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불꽃을 지펴올리기 위한 복수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끼로 부글부글 끓게 할때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일제히 전투장을 타고갔다 대담하게 작전하였다.

한말동안에 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밤을 새고, 나뭇잎을 따서 자제화보계획을 100% 수행.

높은 목표를 세운 그들은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

색하는 적극적인 실천, 헌신적인 창조자가 될 각오를 안고 새로운 혁신의 불꽃을 지켜올리기 위한 복수리를 세차게 울렸다.

부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보안부돌격대와 철도성, 합경북도, 평양시, 자강도, 함경남도려단들에서는 방축선전차와 포진방축기제를 리용하여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노래가 전투장마다 울려 퍼지게 하였다. 그리고 작업실적이 오르는데 맞게 혁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소개하는 축하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에 더 세차게 지퍼올려 매일 전투과제를 150%이상 넘겨 수행하였다. 최고검찰소, 대외건설지도국

린 단원들을 따라앞서도록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었다.

전투장마다에서 정치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보안부돌격대와 철도성, 합경북도, 평양시, 자강도, 함경남도려단들에서는 방축선전차와 포진방축기제를 리용하여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노래가 전투장마다 울려 퍼지게 하였다. 그리고 작업실적이 오르는데 맞게 혁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소개하는 축하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에 더 세차게 지퍼올려 매일 전투과제를 150%이상 넘겨 수행하였다. 최고검찰소, 대외건설지도국

돌격대의 일군들은 혁신의 새 소식을 제때에 찾아내어 소개하였고 조선대양총회사, 전자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과학원, 유원지총국돌격대들에서는 전장 곳곳에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작업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화성, 조선혁명박물관, 인민대학습당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돌격대원들의 승배심을 높여줌으로써 한달동안에 수행하여야 할 전투과제를 보름이상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전진하는 데로의 앞장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조선인민군 주동렬소속부대 지휘관들이 장영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관들의 명령을 관철했다는 오직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문제적으로 벌려 기만차를 타고 수천의 건설자재를 수송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인민보안부돌격대 정치일군은 운전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매일 150여리길을 달리면서 수백대의 소석회수송차를 며칠동안에 끌낼수 있게 하였다.

건설장의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는 속에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장서 실현하기 위한 열매의 보람찬 투쟁에서 기어올려오는 승리가 될 각오를 안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세포동관계자들속에서 한결같이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면서 전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힘이 솟고 성수가 남는다.》

《들끓는 전투장에서 앞채를 메고 내달리는 일군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전투과제가 맡겨진다고 해도 배심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은 세계 첫 전투가 시작되어 지난 2월 중순까지 5천여의 부식도를 넘겨주며만렙은 경공업성돌격대원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천백마리의 웨집보다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는 결사행동으로 돌격구령을 대신하는 일군들이 있는 단위들에서는 언제나 전투수령의 함성이 높이 울려나왔고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었다.

《일군의 이신작적은 백마디 말보다도 감동적인 큰 정치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잘싸 대충을 이끌어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가장 어렵고 방대한 대규모의 자연조건전투이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

일군들 모두가 김정은동지께서 심장을 불태우며 신봉하는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갈 때 대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여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수 있다.

자연의 판관을 이겨내며 생소한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필승의 신장과 큰 산도 옮기는 담대한 배짱을 가진 일군들을 요구한다. 비록 많은 작

하고 결의는 소박하게 다져도 단위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수행해나가는 일군이 바로 현실이 요구하는 일군이다.

《일군들은 완공의 그날까지 신념을 더 바짝 조이고 돌격전의 앞장에서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계조구상을 앞장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사야 할 위치는 들끓는 전투장이며 공격적인 맨 앞자리이다.

모든 지휘관들과 일군들은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제기일에 다그쳐 끝낼때 대한 당의 높은 뜻을 기어올려 결사관철하고야말다는 각오를 가지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도록 하여야 한다. 말처럼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작전과 지휘를 해나가며 비장한 조직적수완과 전격력으로 공사성공을 계속 확대해나간다. 구체적인 토양분석자료는 물론 지난해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의 먹이를 판조성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술적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일군들은 혁신의 밀거물이 되어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하며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충무기가 되어야 한다. 전투장에서 사색을 남기지 말고 이신작적의 감동력으로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어 그들이 세포동관계자들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돌격대원들을 진정한 혁명동지, 친철육으로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만족, 만수무가의 심정으로 돌봐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 모두가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혁명의 지휘성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공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할것이다.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황해북도려단에서 — 본사기자 김 광 혁 작음

개성시대대의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려오도록 현장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돌격대원들스스로가 높은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교과수행에 지향시키고 폭풍시켜나가야 합니다.》

올해 대대앞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의 먹이풀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나왔다. 그만큼 흙보산비료생산량도 부족 늘어야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필요한 땅의 집은 흙보산비료를 한꺼번에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모로 좋았을것이다.

하지만 대대일군들인 김영성, 최홍철동무들은 이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돌격대원들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라야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일군들은 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돌격대원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월성을 파악한 다음 신심있게 달려들도록 현장정치사업을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행하였다. 돌격대원들에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중요성과 의의를 풀없이 이어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력사와 결부시켜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올해 대대가 조성해야 할 먹이풀면적, 그에 필요한 총적인 흙보산비료의 생산량과 그 질보장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 방법의 우월성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돌격대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작업의 실함이나 그들과 함께 땅을 흘리며 흙보산비료원료운반전투를 벌려나가는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화선선동은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물이 되었다.

정치사업의 필요가 커지고 작업분위기가 고조될수록 대대일군들은 준비된 선전선동력량을 현장에 더욱 집중시켜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추진하였다. 특히 이들은 돌격대원들의 애국적열정과 지혜가 지역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현장정치사업의 내용을 지향시켜나갔다.

지난해보다 정보당 2배이상의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 니다.》

세포군 백산지구전투장에서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울려주는 현장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온을 내고있다.

애국열의를 복돋아준 사상사업

흙보산비료생산전투로 들끓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아침부터 현장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군을 다그치던 인민보안부돌격대

보건설총대장 대장 김동준동무는 돌격대원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성과를 높여나가는 능숙한 일군이다. 그는 전투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작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소재, 분대, 돌격대원별로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그는 불철먹이풀생산준비를 시작할 때에도 소재, 분대, 돌격대원별로 갖추어야 할 작업공구의 종류와 수량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20여종에 수백점을 자체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자강도려단 정치부장 김영덕동무는 어렵고 힘든 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고 그

2천여이라는 방에 비하면 한 줄이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세포동관계자들의 향심이 비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작업이 최후의 결판이 되자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한눈의 흙보산비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3월까지 2천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야 한다. 과제와 아름다운 시간이 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물론

조직원이라는 방에 비하면 한 줄이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세포동관계자들의 향심이 비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작업이 최후의 결판이 되자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한눈의 흙보산비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3월까지 2천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야 한다. 과제와 아름다운 시간이 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물론

심장에 불을 다는 현장정치사업

세 포 군 백 산 지 구 전 투 장 에 서

대 정치일군 한경수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돌격대원들이 생산한 흙보산비료의 질이 차이있었다.

얼마후 작업의 결판이 되자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한눈의 흙보산비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3월까지 2천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야 한다. 과제와 아름다운 시간이 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물론

심장에 불을 다는 현장정치사업

세 포 군 백 산 지 구 전 투 장 에 서

대 정치일군 한경수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돌격대원들이 생산한 흙보산비료의 질이 차이있었다.

얼마후 작업의 결판이 되자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한눈의 흙보산비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3월까지 2천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야 한다. 과제와 아름다운 시간이 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물론

심장에 불을 다는 현장정치사업

세 포 군 백 산 지 구 전 투 장 에 서

대 정치일군 한경수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돌격대원들이 생산한 흙보산비료의 질이 차이있었다.

얼마후 작업의 결판이 되자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한눈의 흙보산비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3월까지 2천여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해야 한다. 과제와 아름다운 시간이 긴장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질풍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물론

당 의 목 소 리 가 중단 없이 울 리 게

개성시대대의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려오도록 현장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돌격대원들스스로가 높은 애국적열정을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교과수행에 지향시키고 폭풍시켜나가야 합니다.》

올해 대대앞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의 먹이풀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나왔다. 그만큼 흙보산비료생산량도 부족 늘어야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필요한 땅의 집은 흙보산비료를 한꺼번에 생산할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모로 좋았을것이다.

하지만 대대일군들인 김영성, 최홍철동무들은 이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돌격대원들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라야 좋은 결실을 기대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세 포 전 역 에 새 쳐 지 는 충 정 과 위 훈 의 서 사 시

하루를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의 시시각각으로 자각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어내려는 비장한 각오가 화선선동자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대담소리로써 끊이지 않는 작품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태고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난 꽃송이와도 같이 돌격대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내성전투원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그가라는 단자들처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혁신자도 소문을 낸 인민보안부총국의 녀성소대원들도 있고 청춘의 사랑도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꽃피우며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처녀돌격대원들의 강 의한 투쟁모습도 비껴갔다.

그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관우의 그림자처럼 생동하게 느껴지는 《말에 쓴 회답 편지》, 《꽃피우고 운동화》, 《빨래 한창이》, 《따뜻한 비》, 《나는 비단치마와 같은 신작품들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곳 녀성소대원들에 대한 한결같은 찬란과 존경을 지어내게 하고 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사이에서 오고 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의

